삼성·SK하이닉스, 시스템 반도체 육성 본격화

시스템반도체라인, 기흥 이전… 日에 CIS R&D센터

성장세인 시스템 반도체에 정조준
메모리반도체 불안정성 해소 도모
삼성전자, 부서신설 등 사업 시동

국산 시스템 반도체가 기지개를 켠다. 메모리 반도체 불황으로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돌파구로 기대를 모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화성사업장 개편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 시스템 반도체 생산 라인을 기흥 사업장과 EUV 라인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맡기는 내용이다.

이는 LSI사업부 역량 강화 작업 중 하나로 알려졌다. 메모리사업부 의존도를 줄이고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기흥사업장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평택사업장에서 낸드플래시를 중심으로한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화성사업장에서는 D램과 EUV 라인을 가동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 초 10여년간 113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시스템 반도체 육성 계획에 착수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센서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꾸준히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임원인사에서도 LSI 사업부 임원 승진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SK하이닉스도 청주 메모리 라인 일부를 카메라 이미지 센서(CIS)로 전환하고 일본 도쿄에 CIS 연구개발(R&D)센터를 개소하는 등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도 힘을 쏟기 시작했다. 파운드리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도 이번에 이동재 부사장을 새로 대표이사로 맞아 다시 한 번 도약을 꿈꾼다.

반도체 업계가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메모리 편중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시스템 반도체는 꾸준한 성장을 보이는 반면, 메모리 반도체는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안을 오고가며 일정한 주기를 나타낸다.

〈카메라 이미지 센서〉
삼성전자 반도체 클린룸. /삼성전자

국제반도체재료장비협회(세미)에 따르면 3분기 전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액은 전분기보다 12% 성장했지만, 유럽과 대한민국만 더 하락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유럽 반도체 산업 규모를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만 설비를 줄인 셈이다.

반면 시스템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대만(21%)과 북미(47%)는 대폭 성장하는 데 성공했다. 대만은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를, 북미는 시스템 반도체 1위인 인텔을 보유하고 있다. 메모리가 불황을 거듭하는 사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더 성장했다는 얘기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이 시장을 노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극자외선(EUV) 공정을 앞세운 파운드리 사업을 앞세워 초고화소 CIS와 엑시노스 브랜드의 통합칩(SoC)을 잇따라 내놓으며 실력을 확인시켰다. 미중무역분쟁으로 부품 수급에 비상이 걸린 중국 업체들에 러브콜을 받으며 기회를 확대하기도 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팹리스 업계가 보수적으로 파운드리를 수주하는 만큼, 오랜 기간을 견뎌야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7나노 파운드리를 양산하는 등 역량을 뽐냈지만 여전히 점유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다.

최근 삼성전자가 인텔에 CPU를 수주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퀄컴과 AMD 등도 삼성전자에 제품 전량을 수주하지는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파운드리는 안정성 검증을 끝내면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을 얼마나 제고할 수 있는지가 시스템 반도체 성장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갤럭시 하라주쿠 외관. /삼성전자

LG전자가 LG G8X 씽큐를 일본 시장에 출시했다. /LG전자

일본 내년초 5G 상용화

삼성·LG, 애플 텃밭 日 시장 '재공략'

삼성, 도쿄에 최대 규모 '쇼케이스'
LG, 2년 만에 프리미엄 폰 출시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도 가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늘리기에 나선다.

일본은 애플의 점유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자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폐쇄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내년 초 5G 본격 상용화를 앞둔 만큼 전 세계에서 5G 기술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업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애플은 5G 스마트폰을 내년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 이후에나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정부는 도쿄올림픽에 맞춰 5G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에 전 세계 5G 시작을 알린 국내 업체는 일본에 특화된 마케팅을 진행하거나 일본 주요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공급을 위해 지속 협력하는 등 영향력 확대에 힘쓰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전 세계 갤럭시 쇼케이스 중 가장 큰 규모로 일본 도쿄에 '갤럭시 하라주쿠'를 개관했다. 이곳에선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수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전까지 갤럭시 수리 서비스는 일본 내 통신사업자를 통해서만 제공됐다. 삼성전자는 이후 '갤럭시S10 플러스' 도쿄올림픽 에디션, '갤럭시노트10', '갤럭시 폴드' 등 최신 스마트폰도 잇따라 출시했다.

성과도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전년동기(2.4%)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애플이 압도적인 1위이긴 하지만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애플이 62.7%로 1위를 기록했고, 뒤이어 삼성전자(6.7%), 샤프(5.3%), 소니(4%), 화웨이(1.9%) 순으로 나타났다.

LG전자는 지난 6일 일본 이동통신사 소프트뱅크를 통해 'LG G8X 씽큐'를 일본에 출시했다. G8X는 'V50S 씽큐'의 4G LTE 모델이다.

LG전자가 일본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약 2년 만이다. LG전자는 LG G8X 씽큐를 통해 일본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 재진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G 스마트폰은 내년 초 일본 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일본 주요 이동통신사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5G를 계기로 향후 일본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중국 업체들도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 가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샤오미가 9일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진 것이다. 샤오미는 초기 온라인을 통한 자급제 스마트폰 판매에 집중하면서 이동통신사와의 제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에서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애플의 5G 스마트폰 출시가 다른 업체 대비 늦어지면서 2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폐쇄적인 일본 소비자를 어떻게 사로잡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휴대폰 생산 절반 베트남…생산거점 우뚝

〉〉 1면 ''越 국민기업' 삼성'서 계속

이를 위해 삼성베트남은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지난 10월 22일에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캐스팅, 몰딩 등 6개 분야의 금형전문가들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다.

2008년 베트남에서 제품을 본격 생산, 올해로 공장 가동 10년이 훌쩍 넘은 삼성전자는 올해 기준으로 로컬 협력사만 679곳에 달한다. 특히 2014년 당시 4곳에 그쳤던 1차 협력사는 올해까지 42곳으로 무려 10배나 늘었고, 내년에는 50곳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2회의 부품 소싱전을 개최해 현지 기업들이 삼성의 공급망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도 적극 열어놓고 있다. 이를 통해 2014년부터 총 240개의 잠재적 풀(pool)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들이 향후 삼성베트남의 1·2차 밴더가 되는 셈이다.

박성근 상무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삼성의 노력, 중소기업의 참여로 베트남 부품산업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베트남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삼성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은 현재 하노이 북부에 있는 박닝(1단지·34만평)에서 휴대폰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현지 법인 매출은 수출 6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698억 달러(투자 포함)를 기록했다.

베트남에 있는 이들 3곳 복합단지를 통해 생산하는 휴대폰만 연간 1억6000만 대로 이는 삼성전자 글로벌 전체 생산량의 절반에 달한다. 이를 통해 생산한 휴대폰이 전세계 128개국에 수출되며 베트남이 최고의 글로벌 생산거점이 된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

"IT·바이오헬스는 2중, 3중 규제에 막혀"

〉〉 1면 '"바이오·드론 등"'서 계속

IT와 의료산업을 융복합한 바이오·헬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2중, 3중의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신산업의 규제 틀을 제대로 갖춰 주지 않는 '소극 규제'도 문제다. 소극 규제는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장벽이기도 하며,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규제 인프라가 없어서 기업이 신산업을 추진하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이는 새로운 사업 출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SGI원장은 "여러 부처가 관여되는 규제혁신의 과정에서는 부처별로 분절된 칸막이식 규제집행으로 인해 신산업·신제품의 도입과 시장화에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